



MVPR-2008-36

# VIP REPORT

2008. 10. 14.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주량, 백흥기, 이장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Executive Summary ..... i

1. 한국의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 1

2.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비교 ..... 3

3. 정책적 시사점 ..... 15

■ HRI 경제 지표 ..... 20

## 1. 한국의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2008년 8월 경상수지 적자가 사상최대인 47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8월 상품수지가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1~8월까지의 누적 상품수지도 19억 달러 흑자로 작년 동기간 상품수지 흑자 규모인 190억 달러의 1/10 수준에 불과하여 우리 상품수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상품수지가 급격히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세계 경제 불안정 등의 대외적 요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의 무역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대외 무역구조를 단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상품교역조건지수도 2001년 130에서 2008년 7월 79.3으로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이 같은 지적을 뒷받침 한다.

교역조건 악화는 비싸게 사오고, 싸게 파는 형태로 무역구조가 정착됨을 의미하며,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무역이익과 무역수지의 감소가 뒤따르게 된다. 실제로 교역조건 악화로 인한 실질무역손실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4년 12조 6,000억원에서 2006년 34조 4,000억원, 2008년 54조 9,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교역조건이 악화하는 근본 원인은 대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2000년 이후 한국의 무역구조가 대외 경제환경 변화에 대해 중국, 일본 등 주변경쟁국보다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현재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비교

### ○ 무역의존도와 교역조건 추이 비교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 가장 빠른 교역조건 악화 속도) 2008년 세계은행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83.5로 일본 28.8의 약 3배이며, 중국의 69.0보다도 높다. 3국 중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높은 무역의존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교역조건은 한중일 3국 중 가장 빠르게 악화되었다. 2000년 100을 기준으로, 2008년 각국의 교역조건은 한국 73, 일본 92, 중국 82로 한국의 악화속도가 가장 빨랐다. 세 나라 중에서 원자재와 연료의 수입 비중이 한국 58.4%, 일본 51.6%, 중국 44.2%로 한국이 가장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의 유가 및 원자재가 급등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의 폭도 한국이 가장 클 것으로 판단된다.

### ○ 3국의 수출입 지역구성 비교

(선진지역 수출 비중과 추이) 구매력이 커서, 부가가치가 높은 물건을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에 팔 수 있는 선진지역의 수출비중이 2000년 이후 3국 중 가장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도 세 나라 중 가장 낮아 졌다.

세계 경제의 최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을 보면 한국은 28.2%이지만 일본은 37.3% 그리고 중국은 39.8%를 기록하였다. 선진지역을 UN이 정의한 광의의 선진지역 전체로 확장하였을 경우에도 한국은 39.7%로 일본 41.7%와 중국 53.0%보다 낮았다. 이는 2000년 이후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비중 변화에서 한국은 2000년 51.8%에서 2006년 39.7%로 12.1%p 감소한 반면, 일본은 51.2%에서 41.7%로 9.5%p, 중국은 57.3%에서 53.0%로 4.3%p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중국, 일본에 그만큼 선진시장을 빼앗겼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선진지역 수입 비중과 추이) 지역별 수입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06년 기준, 한국은 전체의 43.1%, 일본은 30.4%, 중국은 37.8%를 선진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선진지역에서의 수입비중이 한국이 가장 높은 주요한 이유는 일본, 미국 등에서의 고부가 핵심부품소재 의존도가 높고, 산업구조가 완전한 고기술, 고부가 가치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로써 2007년 3국 간 부품소재 분야 무역에서 한국은 일본에 19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일본에 2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 ○ 3국의 수출입 상품 구성 비교

(수출상품구성, 일본과는 유사하고 중국과는 차별)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수출에서 기계류로 대표되는 자본재가 각각 41.6%, 38.1% 그리고 39.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재의 경우, 중국이 전체의 27.9%를 차지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각각 4.6%와 4.4%에 불과했다.

(수출단가, 3국 중 가장 크게 하락) 2008년 UN 통계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출상품가격 변화에 있어서 일본이 포함된 선진국과 중국의 단가는 상승한 반면 한국의 단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200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일본 등 선진국의 수출상품가격은 2006년 130으로 30% 상승하였고, 중국도 103으로 3% 상승한 반면 한국은 92로 오히려 8%가 하락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수출단가 하락은 우리제품이 비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수출상품편중도, 3국 중 가장 심해) 3국의 10대 수출상품의 수출액과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경우, 3국 중 수출상품 편중도가 가장 심하다고 판단된다. 10대 수출품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56.5%(1,721억 달러), 일본 43.6%(2,699억 달러), 중국 39.8%(3,447억 달러)로 한국이 10대 상품 의존도가 가장 컸다. 반면, 세계시장 점유율 비교에서는 한국은 조선(24%)과 광학(23%)의 두 종목에서만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보였다. 반면 일본은 8개 산업 중국은 9개 산업에서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의 10대 상품 의존도는 3국 중 가장 큰 반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상품은 오히려 적어 수출 상품 편중도가 높고 시장지배력을 통한 안정도는 낮은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상품 구성과 가격 변화추이) 3국의 수입상품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상품은 한국이 부품·소재를 포함한 산업용 원자재(30.8%), 일본이 석유류(27.6%), 그리고 중국은 기계류로 대표

되는 자본재(45.6%)이었다. 2000년 이후 수입 상품 가격변화 추이는 2000년 10월 기준으로 2006년 일본 등 선진국이 30% 상승, 중국이 27% 상승 한국이 26% 상승으로 차이가 적었다.

### 3. 정책점 시사점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3국 중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추고, 이를 통해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수출지역, 선진국에 더 집중할 필요) 수출지역에 있어서 선진국 시장에 지금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8월에 수정 발표된 IMF의 새로운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개발도상지역은 2008년 6.9% 그리고 2009년 6.7%의 경제성장률로 같은 기간 선진지역의 1.7%와 1.4%보다 크게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구매력을 따져보았을 때 선진지역이 여전히 월등히 큰 시장임을 알 수 있다. PPP로 표시한 1인 당 GNP는 2007년 기준으로 OECD지역이 36,65달러로 5,953달러를 기록한 중간소득지역보다 약 6배 그리고 1,500달러의 저소득지역과 비교해서 약 2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당 PPP로 표시한 GDP가 세계 9위 수준인 미국시장에서 우리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입지역, 개발도상지역의 비중 증가 절실) 수입에 있어서는 개발도상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아프리카지역 등 한국입장에서 저개발 지역으로 수입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예로써 200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비중은 1.5%로 일본과 중국의 2.1%와 3.3%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상품,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개척)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면서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통해 세계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UNCTAD가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유산, 미술품, 미디어, 기능적 창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Creative Industry (창조적 산업)"의 수출시장이 2000년 1,366억 달러에서 2005년 1,944억 달러로 42%나 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2005년 전 세계로 수출한 창조적 제품의 규모가 세계전체의 31.5%수준인 613억 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이 분야로의 진출이 그만큼 시급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수입상품, 원자재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이의 증가율을 낮추는 노력 필요) 한국은 항구적인 원자재 부족국가로 그 필요 수입량을 줄이거나 증가율을 낮추려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는 이미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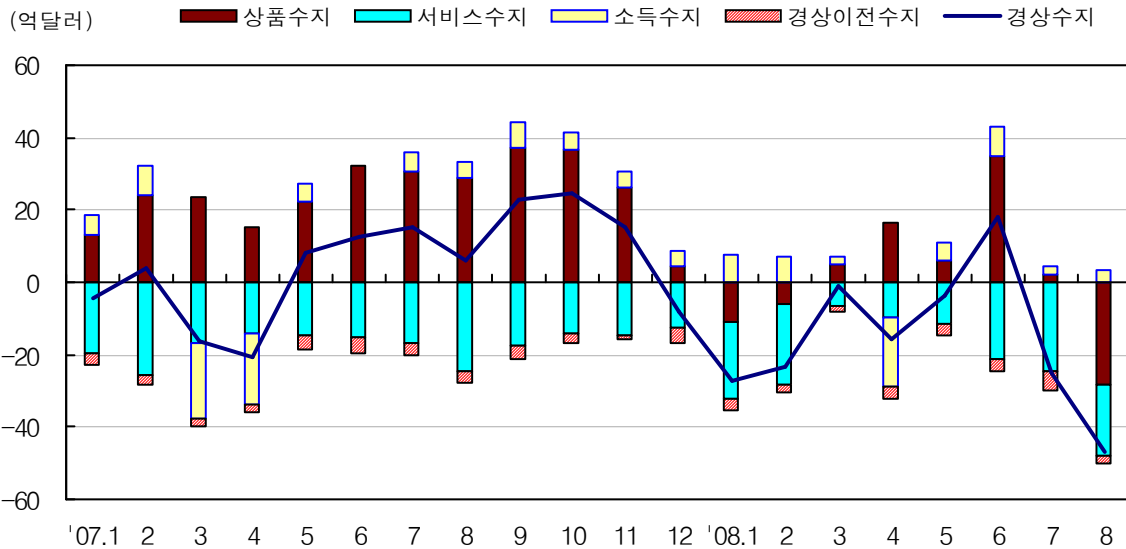
**(한중일 3국간 무역수지의 악화방지를 위한 기술 수준 확보) 한중일 3국간 수출입에 있어 대일무역 적자를 줄이고, 대중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 중위 및 고위기술 확보하여 부품소재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하다.** 한중일 3국 간 부품소재 무역은 각국의 기술수준을 뚜렷히 반영하는 무역수지 구조를 보였으나, 최근 중국의 중저위 기술 및 일본의 고위기술 향상으로 대중 무역흑자는 줄고(06년 198억 달러, 07년 190억 달러)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06년 156억 달러 적자, 07년 187억 달러 적자)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중위 및 고위 기술을 향상시키고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3국간 무역수지 악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 1. 한국의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 (상품수지 급감) 2008년 8월 상품수지가 28.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월의 25.3억 달러에서 47.1억 달러로 확대
  - 2007년 1~8월 중 상품수지 190억 달러 흑자에서 2008년 1~8월 중 상품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로 1/10 수준으로 감소
  - 상품수지 악화로 2008년 1~8월 중 경상수지는 125.9억달러 적자로서 전년 동기 경상수지는 5억 달러 흑자와 대비됨

<최근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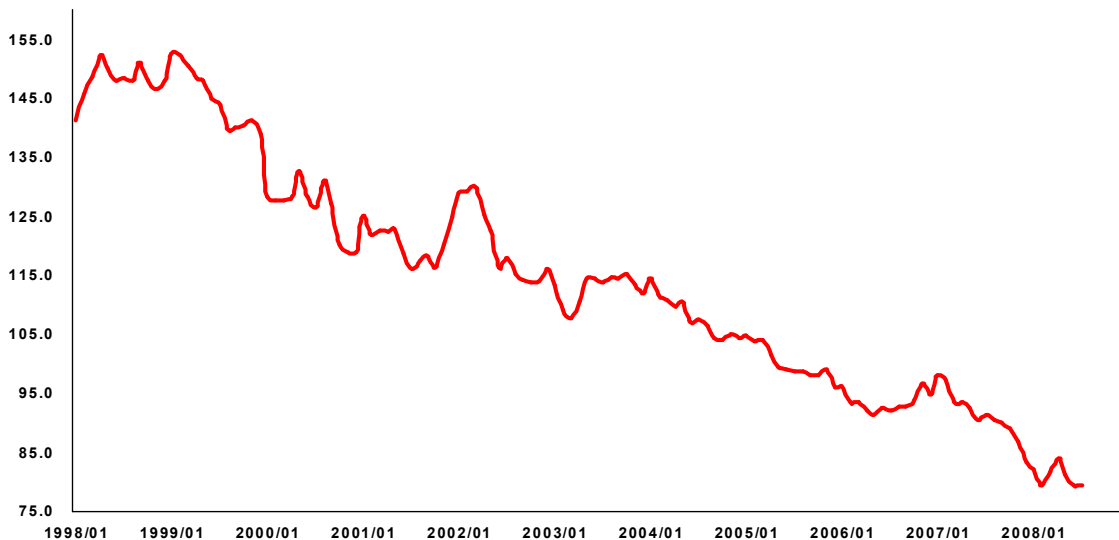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상품수지 급감의 원인) 최근 상품수지가 급격히 감소한 원인으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의 대외적 요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주요한 원인으로 한국의 무역구조가 야기하는 교역조건의 악화를 지적할 수 있음

- **대외적 요인** : 2007년 평균 68.5달러(두바이유)수준이던 국제유가가 2008년 2/4분기 140달러(2/4분기 평균 117 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변동성 확대
- **대내적 요인** : 무역구조를 단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가 2001년 130에서 지속 하락하여 2008년 7월 79.3에 불과

<상품교역조건지수 추이 (2005=100)>



자료 : 한국은행.

- **(교역조건 악화의 의미)** 교역조건 악화는 무역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물량을 수출하여도 무역수지는 감소하게 됨
  - 교역조건지수는 수출물가지수를 수입물가지수로 나눈 것을 지수화(指數化)한 것으로 100보다 클수록 무역이익이 증가하고 작을수록 무역이익이 감소
  -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은 상반기 기준으로 2004년 12조 6,000억원에서 2006년 34조 4,000억원, 2008년 54조 9,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
- **(무역구조와 교역조건)**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대외 환경변화와 함께 수출입 상품과 지역의 구성 등 한국의 취약한 무역구조가 지적됨
  - 특히, 중국, 일본 등 주변 무역 경쟁국과의 무역기조에서 대중무역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대일무역적자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한국 무역구조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음



## 2.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 비교

### □ 무역의존도와 교역조건 추이

○ 무역에 경제가 의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지만 2000년대 들어와 교역조건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크게 악화

- 200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 비율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83.5이며 일본은 28.8이었으며 중국은 69.0임
- 2006년 기준 한국은 상품수출 3,254억 달러 그리고 상품수입 3,093억 달러 기록하여 각각 세계 11위와 13위에 오름
  - 일본은 6,493억 달러 수출, 5,795억 달러 수입으로 각각 세계 4위와 5위를 그리고 중국은 9,689억 달러 수출, 7,914억 달러 수입으로 각각 세계 3위를 차지
  - 2000~2006년 동안 한국의 상품수출과 수입은 연 평균 11%와 12%씩 성장하였으나 중국의 25%와 23%에는 크게 미치지 못함

### <한중일의 상품수출 비교>

(단위 : 억달러, 2006년 기준)

	수출	순위	수입	순위	2000~2006년 연평균 성장률 (%)	
					수출	수입
한국	3,254	11	3,093	13	11	12
일본	6,493	4	5,795	5	5	7
중국	9,689	3	7,914	3	25	23

자료: 『Trade Profiles 2007』, WTO, 2007.

- 한국의 '상품교역조건(net barter terms of trade)'은 세 나라 중에서 최근 가장 크게 하락하여 2006년 기준으로 한국, 일본, 중국은 각각 73, 92, 82로 하락

### <한중의 상품교역조건 추이 (2000년=100)>

	2000	2005	2006
한국	100	79	73
일본	100	98	92
중국	100	87	82

자료: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지역 비교

○ 수출지역을 보았을 때 한국의 제1 상품수출 대상지역은 중국이지만 일본과 중국은 모두 미국

- 2006년 상위 5개 국가가 세 개 국가의 전체 상품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것으로 집계

· 한국의 상위5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63.5%, 일본은 66.2% 그리고 중국은 70.1%로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은 중국, EU 그리고 미국 순으로 상품을 수출

· 한국은 중국에 전체의 21.3%인 693억 달러, EU에 14.9%인 484억 달러 그리고 미국에 13.3%인 432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출

· 일본은 미국에 전체의 22.8%인 1,481억 달러, EU에 14.5%인 942억 달러 그리고 중국에 14.3%인 929억 달러규모의 상품을 수출

· 중국은 미국에 전체의 21.0%인 2,034억 달러, EU에 18.8%인 1,821억 달러 그리고 홍콩에 1,550억 달러어치의 상품수출을 기록

- 세계경제의 최선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비중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

· 한국의 상품수출에서 미국과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28.2%이지만 일본은 37.3% 그리고 중국은 39.8%를 기록하여 한국은 이들과 크게 차이를 보임

<한중일의 주요 상품수출 대상지역의 분포>

	한국	일본	중국
1	중국 (21.3)	미국 (22.8)	미국 (21.0)
2	EU (14.9)	EU (14.5)	EU (18.8)
3	미국 (13.3)	중국 (14.3)	홍콩 (16.0)
4	일본 (8.2)	한국 (7.8)	일본 (9.5)
5	홍콩 (5.8)	대만 (6.8)	한국 (4.8)
계	63.5	66.2	70.1

자료: 『Trade Profiles 2007』, WTO, 2007.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 지역을 선진지역전체로 확장하였을 경우에도 한국의 상품들은 선진지역으로 39.7%만 향한 반면 일본과 중국은 각각 41.7%와 53.0%가 향한 것으로 나타남

### <한중일의 지역별 수출구조 비교>

(단위 : %, 2006년 기준)

	한국	일본	중국
선진지역	39.7	41.7	53.0
남동부 유럽	0.3	0.0	0.8
CIS	2.2	1.3	2.9
북부아프리카	0.6	0.3	0.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	1.1	2.0
중남미	5.9	4.5	3.7
동아시아	31.2	34.6	23.2
남아시아	3.0	1.3	2.9
남동아시아	9.9	11.8	7.4
서아시아	4.3	3.2	3.4
오세아니아	0.4	0.1	0.1
그 외	0.1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한국의 선진지역에 대한 상품수출비중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

### <한국의 지역별 수출구조변화>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51.8	49.2	47.7	44.4	43.5	41.6	39.7
-유럽	14.9	14.4	14.8	14.4	14.9	15.5	15.1
-북아메리카	23.4	22.2	21.9	19.2	18.5	16.0	14.8
남동부 유럽	0.1	0.1	0.1	0.1	0.2	0.2	0.3
CIS	0.8	1.1	1.0	1.3	1.4	1.9	2.2
북부아프리카	0.6	0.6	0.6	0.5	0.6	0.6	0.6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3	2.0	1.8	1.6	2.2	2.2	2.4
중남미	5.3	6.3	5.1	4.4	4.2	5.0	5.9
동아시아	21.7	22.3	25.0	29.4	30.7	31.1	31.2
남아시아	2.4	2.5	2.4	3.1	2.9	2.9	3.0
남동아시아	11.7	11.0	11.3	10.5	9.5	9.6	9.9
서아시아	3.8	4.2	4.1	3.8	4.3	4.2	4.3
오세아니아	0.4	0.6	0.6	0.6	0.4	0.5	0.4
그 외	0.2	0.1	0.1	0.1	0.1	0.1	0.1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한국의 선진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2000년 51.8%에서 2006년 39.7%로 12.1% 포인트 감소한 반면 일본은 51.2%에서 41.7%로 9.5%포인트 그리고 중국은 가장 적은 4.3%포인트만 축소

<일본의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51.2	51.4	48.8	45.5	43.1	42.1	41.7
-유럽	17.5	17.1	15.8	16.6	16.3	15.3	15.1
-북아메리카	31.6	32.1	30.7	26.5	24.3	24.3	24.3
남동부 유럽	0.0	0.0	0.0	0.0	0.0	0.0	0.0
CIS	0.2	0.2	0.3	0.5	0.7	0.9	1.3
북부아프리카	0.2	0.2	0.3	0.3	0.3	0.3	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8	0.8	0.9	0.8	1.0	1.1	1.1
중남미	4.0	4.0	3.5	3.2	3.3	3.9	4.5
동아시아	26.0	26.0	28.9	32.5	34.6	34.7	34.6
남아시아	1.0	1.0	1.0	1.1	1.1	1.2	1.3
남동아시아	14.3	13.5	13.4	13.0	12.9	12.7	11.8
서아시아	2.2	2.7	2.9	2.8	2.8	3.0	3.2
오세아니아	0.1	0.1	0.1	0.1	0.1	0.1	0.1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중국의 지역별 수출구조 변화>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57.3	57.1	55.8	55.9	55.1	55.0	53.0
-유럽	16.8	17.0	16.5	18.3	18.5	19.4	19.3
-북아메리카	22.2	21.7	22.8	22.4	22.5	23.0	22.7
남동부 유럽	0.1	0.2	0.2	0.2	0.3	0.3	0.8
CIS	1.3	1.3	1.6	2.1	2.3	2.8	2.9
북부아프리카	0.6	0.6	0.6	0.6	0.6	0.7	0.8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4	1.7	1.5	1.7	1.7	1.8	2.0
중남미	2.9	3.1	2.9	2.7	3.0	3.1	3.7
동아시아	24.9	24.6	25.2	24.5	24.4	23.5	23.2
남아시아	1.8	1.9	2.1	2.2	2.3	2.5	2.9
남동아시아	7.0	6.9	7.2	7.1	7.2	7.3	7.4
서아시아	2.7	2.6	2.9	3.0	2.9	3.1	3.4
오세아니아	0.0	0.0	0.0	0.1	0.0	0.1	0.1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수입을 지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세 나라 중에서 한국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 2006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이 상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이며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총 수입액의 16.8%에 해당하는 519억 달러,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20.5%에 해당하는 1,187억 달러 그리고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14.6%에 해당하는 1,155억 달러어치의 상품을 수입

<한중일의 주요 상품수입 대상지역의 분포>

(단위 : %)

	한국	일본	중국
1	일본 (16.8)	중국 (20.5)	일본 (14.6)
2	중국 (15.7)	미국 (12.0)	EU (11.4)
3	미국 (10.9)	EU (10.3)	한국 (11.3)
4	EU (9.7)	사우디아라비아 (6.4)	대만 (11.0)
5	사우디아라비아 (6.6)	아랍에미리트 (5.5)	중국 (9.3)*
계	59.7	54.7	57.6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참고: \* 중국산 상품의 중국으로의 재수입.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상품을 수입하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싼 상품을 수입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음

- 2005년 현재 전체경제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1인당 총보수를 살펴볼 경우 일본이보다 5,000달러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가격이 임금수준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하면 일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의 상품을 한국이 수입하고 있을 가능성 높음

<근로자 1인당 보수 비교>

(단위: 달러, 2005년 기준)

	한국	일본
1인당 보수 총계	27,389	33,013.1

자료: OECD (<http://www.oecd.org>).

- 지역을 선진지역 전체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세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6년의 경우 한국의 선진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이 전체의 43.1%, 일본은 30.4% 그리고 중국은 37.8%를 기록하여 한국이 가장 높았음

<한중일의 지역별 수입 구조>

(단위: %, 2006년 기준)

	한국	일본	중국
선진지역	43.1	30.4	37.8
남동부 유럽	0.0	0.0	0.1
CIS	1.7	1.3	2.9
북부아프리카	0.4	0.1	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	2.1	3.3
중남미	3.1	3.3	4.3
동아시아	19.4	29.0	33.2
남아시아	3.0	2.7	2.7
남동아시아	9.6	13.8	11.3
서아시아	18.2	17.0	4.0
오세아니아	0.1	0.2	0.1
그 외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한국의 지역별 수입구조변화>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54.5	52.2	53.0	51.2	49.6	46.6	43.1
남동부 유럽	0.0	0.0	0.0	0.0	0.1	0.0	0.0
CIS	1.6	1.7	1.7	1.7	2.0	1.7	1.7
북부아프리카	0.1	0.2	0.3	0.2	0.3	0.2	0.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8	1.3	1.2	1.2	1.3	1.2	1.5
중남미	2.0	2.4	2.4	2.5	2.9	2.6	3.1
동아시아	11.7	13.4	15.8	17.1	17.9	18.7	19.4
남아시아	2.3	2.5	1.9	1.9	2.1	2.3	3.0
남동아시아	11.3	11.3	11.0	10.3	10.0	10.0	9.6
서아시아	14.4	14.9	12.6	13.8	13.7	16.6	18.2
오세아니아	0.1	0.1	0.1	0.1	0.1	0.1	0.1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한국의 무역구조 변화와 한중일 비교

- 한국의 2000년 선진지역으로부터의 상품수입비중이 54.5%에서 2006년 43.1%로 낮아졌지만 일본이 대표하는 아시아·태평양 선진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그 감소폭이 훨씬 작음

### <일본의 지역별 수입구조변화>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39.7	39.5	38.9	36.5	34.8	32.3	30.4
남동부 유럽	0.0	0.0	0.0	0.0	0.0	0.0	0.0
CIS	1.3	1.2	1.1	1.2	1.4	1.3	1.3
북부아프리카	0.1	0.1	0.1	0.1	0.1	0.1	0.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2	1.2	1.5	1.6	1.8	1.8	2.1
중남미	2.8	2.6	2.6	2.5	2.8	2.8	3.3
동아시아	25.1	26.0	27.4	28.5	29.6	29.6	29.0
남아시아	2.3	2.2	2.2	2.6	2.5	2.7	2.7
남동아시아	15.7	15.6	15.3	15.3	14.8	14.1	13.8
서아시아	11.6	11.3	10.7	11.5	12.0	15.0	17.0
오세아니아	0.2	0.2	0.2	0.2	0.2	0.2	0.2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일본과 중국은 선진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비중을 2000년 각각 39.7%와 47.4%에서 2006년 각각 30.4%와 37.8%로 낮춤

### <중국의 지역별 수입구조변화>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지역	47.4	48.4	45.2	43.3	41.8	38.3	37.8
남동부 유럽	0.1	0.1	0.1	0.1	0.1	0.1	0.1
CIS	3.3	4.0	3.6	3.2	2.9	3.1	2.9
북부아프리카	0.1	0.1	0.1	0.1	0.2	0.3	0.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4	1.8	1.7	1.9	2.6	2.9	3.3
중남미	2.4	2.7	2.8	3.6	3.9	4.0	4.3
동아시아	29.2	28.5	31.5	31.4	31.8	33.4	33.2
남아시아	1.6	1.9	1.8	2.0	2.3	2.7	2.7
남동아시아	9.9	9.5	10.6	11.5	11.2	11.4	11.3
서아시아	3.7	2.9	2.5	2.8	3.2	3.8	4.0
오세아니아	0.1	0.1	0.1	0.1	0.1	0.1	0.1
그 외	0.0	0.0	0.0	0.0	0.0	0.0	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한중일 3국의 수출입 상품과 가격의 비교

○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의 세계시장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2006년의 수출을 제품별로 분류하였을 경우 한국은 일본과 유사점 공유
  -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출에서 기계류로 대표되는 자본재가 각각 41.6%, 38.1% 그리고 39.4%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소비재가 전체의 27.9%를 차지한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 비중이 각각 4.6%와 4.4%에 불과

<2006년 한중일의 수출구조, 상품별 (by BEC)>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식음료제품	0.8	0.4	2.7
- 1차상품	0.2	0.08	0.8
- 가공상품	0.6	0.32	1.9
산업자재	25.5	23.2	22.4
- 1차상품	0.5	0.9	0.6
- 가공상품	25.0	22.3	21.8
연료 및 운할유	6.2	0.9	1.7
- 1차상품	0.0	0.01	0.7
- 가공상품	6.2	0.89	1.0
자본재	41.6	38.1	39.4
- 설비류	20.8	18.2	25.1
- 부품 및 악세서리	20.8	19.9	14.3
운송장비, 부품 및 악세서리	21.3	28.3	5.6
- 승용차, 상용차	9.4	14.6	0.1
- 운송장비	6.9	5.1	2.4
- 부품 및 악세서리	5.0	8.6	3.1
소비재	4.6	4.4	27.9
- 내구재	2.2	2.3	6.9
- 반내구재	1.5	1.2	17.4
- 비내구재	0.9	0.9	3.6
기타	0.0	4.7	0.3
계	100	100	1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가격) 그러나 수출상품가격에 있어서 일본이 포함된 선진국과 중국의 것은 상승한 반면 한국은 하락한 채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짐
  - 2000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선진국 전체의 수출상품가격은 2006년 130으로 30% 상승하였고 중국의 경우도 103으로 3% 상승한 반면 한국은 92로 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수출의 단위가격지수(unit value index) 추이 (2000년=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국	98	98	110	119	124	130
개발도상국	95	94	98	107	123	135
대한민국	87	83	85	92	93	92
중국	99	98	97	99	101	103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 (한국) 2005~06년을 평균하여 10대 수출상품의 수출액과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을 나타남

- 10대 수출품의 총 수출규모는 약 1,721억 달러, 전체의 56.5%
- 한국의 제1 수출품은 통신장비부품은 전체 수출의 11.0%인 335억 달러어치를 수출하여 세계시장에서 점유율 8.61%를 기록
- 전체적으로 두 자리 수 이상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인 제품은 24.33%의 조선과 해상구조물 그리고 22.58%인 광학제품의 두 개에 불과

<한국의 10대 수출상품의 구성과 비중, 2005~06년 평균 (by SITC Rev.3)>

10대 상품 (SITC Rev.3 세 자리 수 기준)	규모 (억 달러)	비중 (%)	세계전체에서 비중 (%)
통신장비부품	335	11.0	8.61
자동차	289	9.5	5.69
밸브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79	9.2	7.09
선박 및 해양구조물	193	6.3	24.32
중질유 등 석유제품	175	5.7	4.21
광학 장치와 기구	115	3.8	22.58
컴퓨터 장비	88	2.9	3.11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86	2.8	3.52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85	2.8	4.05
전자기계기구	76	2.5	4.85
그 외	1,323	43.4	
전체	3,049	100.0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 (일본) 일본은 10대 상품 수출 중 통신장비와 사무기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8개가 모두 두 자리 수 점유율을 보임

- 일본의 10대 상품 수출규모는 전체의 43.6%인 2,699억 달러
- 제1수출품은 자동차로 871억 달러에 14.0%를 차지하였고 세계시장에서 17.14%를 점유

<일본의 10대 수출상품의 구성과 비중, 2005~06년 평균 (by SITC Rev.3)>

10대 상품 (SITC Rev.3 세 자리 수 기준)	규모 (억 달러)	비중 (%)	세계전체에서 비중 (%)
자동차	871	14.0	17.14
발브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408	6.6	10.33
자동차 부품 및 악세서리	261	4.2	10.65
전자 기계 기구	193	3.1	12.31
특수 산업 설비 부품	185	3.0	17.84
통신장비부품	180	2.9	4.63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165	2.7	7.84
전자회로부품	158	2.6	10.38
내연기관과 부품	147	2.4	12.48
측정,분석,제어 장비	130	2.1	11.05
그 외	3,509	56.4	
전체	6,208	100.0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 (중국) 10대 수출품 중에 노동집약적인 제품이 있으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전자부품을 제외하고 9개 품목에서 두 자리 수 세계시장 점유율 기록
  - 중국의 10대 상품 수출규모는 3,447억 달러 전체의 39.8%를 차지
  - 중국의 제1 수출품은 컴퓨터 장비로 846억 달러 규모에 전체의 9.8%를 차지하였고 세계시장 점유율은 29.67%

<중국의 10대 수출상품의 구성과 비중, 2005~06년 평균 (by SITC Rev.3)>

10대 상품 (SITC Rev.3 세 자리 수 기준)	규모 (억 달러)	비중 (%)	세계전체에서 비중 (%)
컴퓨터 부품	846	9.8	29.67
통신장비부품	735	8.5	18.85
사무용품 및 악세서리	321	3.7	15.22
섬유소재	281	3.3	28.17
발브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248	2.9	6.28
유아용품, 장난감, 운동용품	224	2.6	33.20
영상 음성 녹화 재생기	208	2.4	33.54
신발류	204	2.4	29.54
전자 기계 기구	188	2.2	11.97
가구, 가구부품	187	2.2	18.26
그 외	5,207	60.2	
전체	8,654	100.0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 수입에 있어서는 높은 원자재 수입비중과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 소재산업의 일본에 대한 의존이 높음

- 2006년 한국은 부품·소재를 포함한 산업용 원자재, 일본은 석유류 그리고 중국은 기계류로 대표되는 자본재의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총 수입에서 산업용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8%, 일본의 경우는 석유류가 27.6% 그리고 중국은 자본재의 비율이 45.6%로 나타남

<2006년 한중일의 수입구조(by BEC)>

	대한민국	일본	중국
식음료제품	3.4	7.4	2.6
- 1차상품	1.1	2.6	1.4
- 가공상품	2.2	4.9	1.3
산업 원자재	30.8	24.0	33.1
- 1차상품	5.8	6.4	8.2
- 가공상품	25.0	17.6	24.9
연료 및 운할유	27.6	27.6	11.1
- 1차상품	19.8	19.5	8.6
- 가공상품	7.8	8.1	2.5
자본재	28.9	20.9	45.6
- 설비류	13.6	10.3	17.7
- 부품 및 악세서리	15.3	10.6	27.8
운송장비, 부품 및 악세서리	4.0	5.3	5.0
- 승용차, 상용차	0.6	1.3	0.9
- 운송장비	1.1	0.9	1.4
- 부품 및 악세서리	2.3	3.1	2.7
소비재	5.2	14.2	2.3
- 내구재	1.0	2.6	0.6
- 반내구재	2.8	7.2	1.1
- 비내구재	1.4	3.4	0.6
기타	0.1	1.6	0.3
계	100	100	100

자료: UNcomtrade (<http://comtrade.un.org>).

- (가격)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상품가격이 그동안 꾸준히 상승
- 2000년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한국의 단위수입가격은 2006년 126으로 26% 상승하였고 중국은 127로 27% 선진국은 130으로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의 큰 이유는 국제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가격이 상승한 때문

<수입의 단위가격지수(unit value index) 추이 (2000년=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선진국	97	96	106	116	122	130
대한민국	91	88	96	107	117	126
중국	98	97	100	108	118	127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주요자원의 시장가격 변화 (2000년=1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모든 원자재	96.4	97.2	105.1	126.1	140.8	183.6	207.2
식량	99.6	102.5	106.8	120.8	128.4	149.4	169.2
농산물 원자재	96.1	93.8	112.4	127.4	132.3	152.2	169.3
광물자원	89.2	86.8	97.6	137.3	173.2	277.7	313.2

자료: UNCTAD Handbook of Statistics 2008, UNCTAD, 2008.

- 2006년 한국의 총 수입 3,093억 달러 중에서 1,747억 달러 (56.4%)를 원자재가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외부환경의 변화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짐
- 2007년 현재 수입의 36.9%를 차지하는 부품·소재산업의 일본에 대한 적자누적도 교역조건악화에 부정적인 영향
  - 2007년 일본에 대해 부품에서 81억 달러 소재에서 106억 달러의 적자기록

<대일 부품 및 소재 무역 현황 (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4
부품	수출	44	48	56	67	78	96	89	28
	수입	104	113	136	153	158	159	170	62
	수지	-58	-64	-80	-86	-79	-62	-81	-34
소재	수출	17	16	20	28	34	39	45	18
	수입	61	69	78	101	115	132	151	58
	수지	-44	-52	-58	-72	-81	-92	-106	-40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3.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3국 중 가장 높은 무역의존도를 낮추어 교역조건 악화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 수출에 있어서 선진국 시장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

- 선진국은 여전히 구매력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의 추종을 불허
  - 8월에 발표된 IMF의 수정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선진국은 2008년 1.7% 그리고 2009년 1.4%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 반면 개발도상 지역은 각각 6.9%와 6.7%씩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IMF 세계경제전망>

	2008	2009
선진경제권	1.7	1.4
신흥 및 개발도상 경제권	6.9	6.7
세계 전체	4.1	3.9

자료: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IMF, July 2008.

- 그러나 구매력을 나타내는 PPP로 표시한 1인당 GNI는 2007년 기준으로 OECD지역이 36,657달러로 중간소득지역의 5,953달러의 약 6배 그리고 저소득 지역의 1,500달러와 비교해서는 약 24배에 해당

<2007년 현재 지역별 구매력 비교>

	Per Capita GNI in PPP (달러)
고소득: OECD	36,657
중간소득	5,953
저소득	1,500

자료: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 특히 미국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
  - 2007년 PPP로 표시한 1인당 GDP가 45,800달러로 세계 8위에 올랐던 미국은 단연코 중요한 시장

- 하지만 2004년 우리상품의 시장점유율이 3.1%로 7위에서 2008년 상반기 시장 2.3% 9위로 하락

**<최근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순위>**

순위	2004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1	캐나다 (17.4)	캐나다 (17.3)	캐나다 (16.3)	중국 (16.4)	캐나다 (16.6)
2	중국 (13.3)	중국 (14.5)	중국 (15.5)	캐나다 (16.2)	중국 (14.6)
3	멕시코 (10.6)	멕시코 (10.1)	멕시코 (10.6)	멕시코 (10.7)	멕시코 (10.4)
4	일본 (8.8)	일본 (8.2)	일본 (7.9)	일본 (7.4)	일본 (6.9)
5	독일 (5.2)	독일 (5.0)	독일 (4.8)	독일 (4.8)	독일 (4.8)
6	영국 (3.1)	영국 (3.0)	영국 (2.8)	영국 (2.9)	영국 (2.7)
7	한국 (3.1)	한국 (2.6)	한국 (2.4)	한국 (2.4)	사우디아라비아 (2.5)
8	대만 (2.3)	대만 (2.0)	대만 (2.0)	프랑스 (2.1)	베네수엘라 (2.4)
9	프랑스 (2.1)	베네수엘라 (2.0)	베네수엘라 (2.0)	베네수엘라 (2.0)	한국 (2.3)
10	말레이시아 (1.9)	프랑스 (2.0)	프랑스 (2.0)	대만 (1.9)	프랑스 (2.0)

자료: 『2008년 상반기 미국 수입시장 동향』, KOTRA, 2008년.

**○ 수입에 있어 개발도상 지역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

- 아프리카와 같은 자원 부국으로부터의 광물자원 수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
  - 2006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사하라이남 지역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은 1.5%였으나 일본과 중국은 각각 2.1%와 3.3%
  -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60%, 인산염의 40% 그리고 코발트의 30% 등 희귀광물자원의 보고로 알려짐

**<아프리카 국가들의 주요 광물자원 매장 규모>**

국가	주요광물 (세계전체 매장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
남아프리카 공화국	다이아몬드 (12), 금 (19), 마그네슘 (5), 니켈 (6), 인산염 (8), 백금 (88)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다이아몬드 (26), 코발트 (45), 구리 (2), 아연 (1)
기니	보크사이트 (30)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22.6)
나미비아	우라늄 (7.1), 아연 (1.2)
모로코	인산염 (32), 아연 (1)
잠비아	구리 (3.4), 코발트 (3.6)
가봉	마그네슘 (3.4)
나이지	우라늄 (3.4)

자료: 『Africa's Natural Resources in the Spotlight Again』, Deutsche Bank Research, 2007.

○ 원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이 절실

- 한국은 항구적인 원자재 부족국가로 그 필요 수입량을 줄이거나 증가율을 낮추려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마당에서 원자재의 효율적인 사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
  - 2004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9.77톤으로 일본의 9.84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CO2 배출량 당 GDP에 있어서는 1,463달러로 일본의 3,663달러보다 크게 작아 그만큼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현재 CO2 배출과 그 경제적 효과 비교>

	1인당 CO2 배출량 (톤/1인)	CO2 배출량 당 GDP (천 달러/1톤)
대한민국	9.77	1.463
일본	9.84	3.663
중국	3.84	0.45

자료: United Nation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Indicators (<http://mdgs.un.org>).

주: 기준년도=2004년

○ 주요 수출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 높이는 작업과 함께 새로운 산업의 발굴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지배하려는 노력 병행

-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 지속
  - 세계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조선 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지속하고 여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이를 재고할 방안을 강구
- “Creative Industry (창조적 산업)”과 같은 새로운 산업분야에 진입
  - UNCTAD는 2008년 『Creative Economy Report 2008』에서 Creative Industry가 문화유산(heritage), 미술품(arts), 미디어, 기능적 창작물(functional creations)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
  - 2005년 현재 ‘창조적 제품(creative goods)’의 수출규모는 2000년 기준으로 42% 성장한 1,944억 달러 기록
  - 중국의 2005년 수출 규모가 전체의 31.5%인 613억 달러에 달하였고 2000년 대비 성장률이 115%

<창조적 제품(creative goods)의 수출 추이>

	2000년 (억 달러)	2005년 (억 달러)	2000-05 성장률 (%)
선진지역	1,366	1,944	42
개발도상지역	898	1,362	52
- 중국	284	613	115
체제전환지역	222	481	116
세계전체	2,286	3,354	47

자료: 『Creative Economy Report 2008』, UNCTAD,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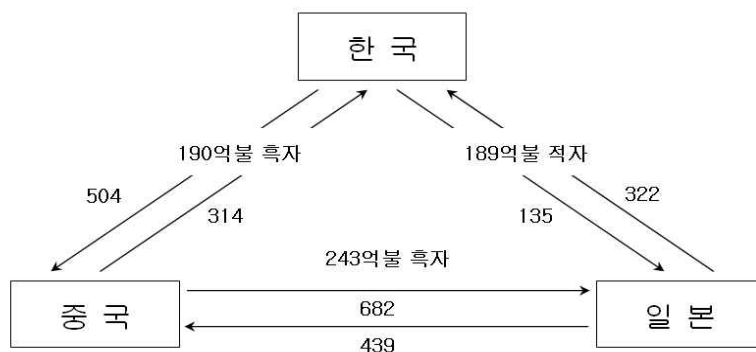
○ 한중일 3국간 수출입에 있어 대일무역 적자를 줄이고, 대중무역 흑자를 늘리기 위해 중위 및 고위기술 확보하여 부품소재의 경쟁력 향상이 절실

- 한중일 3국 간 부품소재 무역은 각국의 기술수준을 반영하여 뚜렷한 무역수지 구조를 보였으나 최근 한국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

· 최근 중국의 중저위 기술 향상과 일본의 고위기술 향상으로 대중 무역흑자는 줄고(06년 198억 달러, 07년 190억 달러) 대일 무역적자는 확대(06년 156억 달러 적자, 07년 187억 달러 적자)되고 있음

· 따라서, 중위 및 고위 기술을 향상시켜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함

<2007년 한중일 3국간 부품소재분야 무역수지>



자료: 무역협회([www.kite.net](http://www.kite.net)).

예상한 연구위원 (3669-4181, [syeahk@hri.co.kr](mailto:syeahk@hri.co.kr))  
 이주량 연구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mailto:jryanglee@hri.co.kr))



## HRI 經濟 指標

---

###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2008(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7.0	3.1	4.7	4.2	5.1	5.0	4.9
	최종소비지출 (%)	7.6	-0.3	0.4	3.9	4.8	4.7	3.5
	민간소비 (%)	7.9	-1.2	-0.3	3.6	4.5	4.5	3.4
	총고정자본형성 (%)	6.6	4.0	2.1	2.4	3.6	4.0	4.3
	건설투자 (%)	5.3	7.9	1.1	-0.2	-0.1	1.2	2.8
	설비투자 (%)	7.5	-1.2	3.8	5.7	7.8	7.6	6.5
대 외 통 관 래 기 준	경상수지 (억 \$)	54	119	282	150	54	60	-10
	무역수지 (억 \$)	103	150	294	232	161	146	60
	수출 (억 \$)	1,625	1,938	2,538	2,844	3,255	3,715	4,330
	증가율 (%)	(8.0)	(19.3)	(31.0)	(12.0)	(14.4)	(14.1)	(16.6)
	수입 (억 \$)	1,521	1,788	2,245	2,612	3,094	3,568	4,270
	증가율 (%)	(7.8)	(17.6)	(25.5)	(16.4)	(18.4)	(15.3)	(19.7)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7	3.6	3.6	2.8	2.2	2.5	3.8
	실업률 (%)	3.1	3.4	3.7	3.7	3.5	3.2	3.3
금 융	원/\$ 환율 (평균, 원)	1,253	1,192	1,145	1,024	955	929	995
	국고채금리 (평균 %)	5.8	4.6	4.1	4.3	4.8	5.2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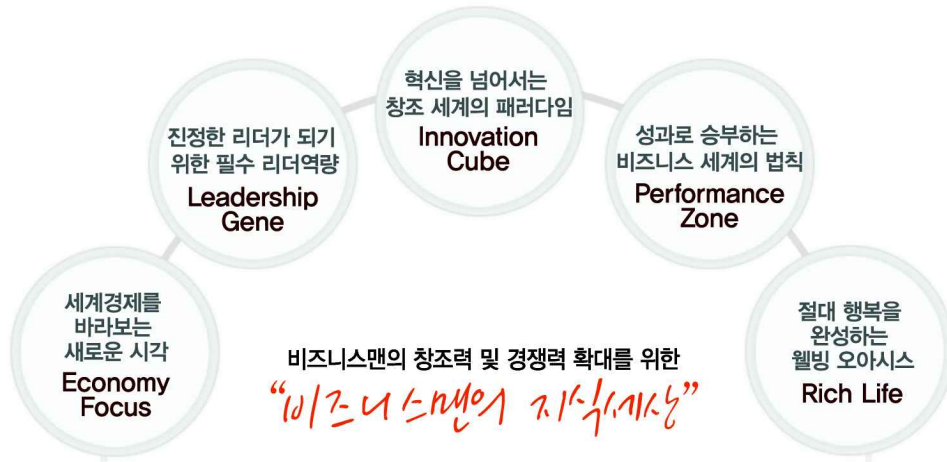
# 내 인생 최고의 멘토를 만나다!

## Creative business contents tank, Usociety

21세기는 지식 경쟁력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트렌드, 나만 뒤쳐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비즈니스맨들의 창조력 충전 및 경쟁력 확대를 위한 지식 정보 콘텐츠,  
 Usociety에서 만나보세요.

### 비즈니스 지식 정보 TV, CreativeTV.co.kr

창조의 5분, 성공의 5분! 그 5분을 위한 다이제스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Usociety의 미션입니다.  
 HD VIDEO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십시오.



### 글로벌 비즈니스의 완성, EBS 어학 프로그램

최고의 어학 강의, EBS 어학 콘텐츠! 국내 대표 강사진들의 명 강의로 구성된 3,200편 이상의 풍부한 어학 프로그램을 Usociety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usiness	Conversation	Global
영어인터뷰 START 인터뷰 영어족보 비즈니스영어 모질게 new TOEIC 비겁한 new TOEIC 外	Style English Survival English 영어 말하기 START Oxford 회화 말미잘 English 外	리듬 중국어 입문 이키이키 일본어 러시아어 첫걸음 스페인어 첫걸음 터키어 첫걸음 外

### 차별화된 경쟁력, Competency Tools

#### 지식노트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저널까지 한 눈에 보는 weekly webzine

#### U-Times

지식 트렌드를 손에 잡을 수 있는 콘텐츠 매거진

#### U-Planner

프로페셔널리즘의 시작, 웹 프랭클린 플래너

#### eBook

비즈니스에서 교양까지, 시간으로만 채워지는 digital library